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1년 8월

석사학위 논문

# To-부정사의 시제와 상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오 미 경

# To-부정사의 시제와 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ense and Aspect in To-infinitive

2011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오 미 경

# To-부정사의 시제와 상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 영 헌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오 미 경

오미경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조교수 최 영 주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남 근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영 현 (인)

2011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차 례

ABSTRACT .....	iii
I .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대상과 방법 .....	1
II . To-부정사의 시제와 상에 관한 연구 .....	3
1. To-부정사의 형식과 시제 .....	3
1.1 To-부정사의 형식 .....	3
1.1.1 To-부정사의 단순형 .....	3
1.1.2 To-부정사의 완료형 .....	4
1.2 To-부정사의 시제 .....	6
1.2.1 To-부정사의 과거시제 .....	9
1.2.2 To-부정사의 현재시제 .....	9
2. 상(aspect) .....	11
2.1 상(aspect)의 분류 .....	11
2.1.1 문법적 상 .....	14
2.1.2 어휘적 상 .....	20
2.2 상(aspect)의 의미 .....	25
2.2.1 Telicity .....	25

2.2.2 Atelicity .....	27
2.2.3 Telicity와 Atelicity의 비교 .....	28
2.2.4 어휘 통사구조 .....	32
2.2.5 한국어에 나타난 상(aspect)의 의미 .....	37
III. 결론 .....	42
참고문헌 .....	43

# ABSTRACT

## A Study of Tense and Aspect in To-infinitive

Oh Mi Kyung

Advisor : Prof. Lee Young-Hern, Ph.D.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ense and aspect by using aspect in to-infinitive. This study especially focuses on the role of relation tense and aspect in to-infinitive. This study examines two meanings. They are telicity and atelicity. This study is especially related with lexical aspect. This study presents another meaning in the combination between lexical aspect and tense of main verb in to-infinitive sentence.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chapters. In the first chapter, purpose and necessity of this study is described. In the second chapter, aspect(lexical and grammatical aspect) and tense are described. That is, this study is about tense, grammatical aspect and lexical aspect. In the third chapter, the results is described. This study suggests that future studies have to observe how we understand various meanings in to-infinitive sentence. This study is to allow for tense and aspect. Tense of to-infinitive is an important part in English. Aspect and tense are both concerned with temporal



reference, and considering that tense may imply aspectual meaning,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tense and aspect. Aspectual meanings vary according to the distinction of count terms and mass terms. To describe the tense of to-infinitive, it is needed aspect to express another semantic meaning – Telicity and Atelicity. If to-infinitive has tense, it will present the reason and I will examine grammatical aspect and lexical aspect. The meaning of tense is different according to verbs. Particular verbs of hope, wish, intend present the future. And progressive (be+V-ing) presents near future. English has only two tenses – past and present, that is, they have just a limited meaning. So they are needed combination aspect and tense to present other meanings. I hope this study could help somebody who studies to-infinitive in the future.

# 1. 서론

## 1. 연구의 목적

To-부정사는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형태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즉 조동사를 포함한 모든 동사는 반드시 시제 표시를 가져야 하지만, to-부정사는 형태상의 시제 표시를 갖지 않으면서도 동사로서의 기능 즉 논항을 취하는 함수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사가 갖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수의 일치를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to-부정사는 주어와 수의 일치에도 불응한다. 더욱 이들 부정사는 일반 동사와는 달리 제 1논항의 표시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to-부정사는 시제의 표시도 없고, 수의 일치도 없으며, 나아가서는 명시적 논항의 표시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사(infinitive)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이렇듯 to-부정사는 형태상으로는 시제나 수의 일치가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이들이 나타내는 시제나 상, 그리고 논항의 의미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통사가 갖는 시제와 상, 그리고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본 고에서는 영어 to-부정사의 시제(tense)와 상(aspect)을 중심으로 이들의 의미가 telicity와 atelicity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한국어에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비교하여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 2. 연구대상과 방법

To-부정사(to-infinitive)는 자체적으로 시제가 없으므로 상(aspect)을 이용해서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순상, 완료상이라는 상(aspect)과 to-부정사의 본동사의 시제(tense)를 바탕으로 to-부정사의 시제가 좌우된다. 그리고 동사의 특성에 따라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다. 바램, 희망, 의도 등을 나타내는 동

사 wish, hope, intend 등이 to-부정사와 쓰이면 미래를 나타낸다.

언어의 모든 문장은 품사가 일정한 어법의 규칙에 따라 완성되고 조직된 것이기 때문에 품사를 빼놓고는 어법을 말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to-부정사의 시제(tense)와 상(aspect)에 대해서 설명하고, 상(aspect) 속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시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telicity<sup>1)</sup>(종결성)와 atelicity(미종결성)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보통 사건(event)의 특성에 따라 어떤 사건이 종결 되었는지 아닌지의 종결성의 여부에 따라 telicity와 atelicity로 나타낼 수 있다. 여러 연구자들의 기존 연구를 토대로 상(aspect)과 telicity<sup>2)</sup>(종결성)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 안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To-부정사가 시제는 없지만, 몇 가지의 규칙을 통해서 시제를 표현할 수 있고, 시제(tense)와 상(aspect) 그리고 telicity(종결성)의 관계를 telic과 atelic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겠다.

---

1) Wikipedia에서의 Telicity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In linguistics, telicity (from the Greek τέλος, meaning "end" or "goal") is the property of a verb or verb phrase that presents an action or event as being complete in some sense. A verb or verb phrase with this property is said to be telic, while a verb or verb phrase that presents an action or event as being incomplete is said to be atelic.'

2) Telic(종결성)은 사건의 자연스런 완료를 포함하고 완료 이후에 계속될 수 없는 경우를 나타내며, atelic(미종결성)과 대조된다. 그리고 종결성과 미종결성은 유한성(boundedness)과 무한성(unboundedness)으로 표현된다.

## II . To-부정사의 시제와 상에 관한 연구

### 1. To-부정사의 형식과 시제

#### 1.1. To-부정사의 형식

To-부정사<sup>3)</sup>의 형식은 ‘to’ 다음에 동사원형이 오고, 일반 동사와 달리 시간 관계가 처음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to+동사원형’이라는 같은 형식을 취할지라도 문장 속의 본동사(main verb)가 현재이면 현재가 되고, 본동사가 과거이면 과거가 된다. 즉 본동사가 나타내는 시간에 따라 to-부정사의 시제<sup>4)</sup>(tense)가 결정된다.

##### 1.1.1. To-부정사의 단순형

To-부정사의 단순형(simple forms)은 ‘to+동사원형’으로, 본동사(main verb)가 현재이고 to-부정사가 단순형(현재형)일 때 to-부정사는 본동사와 동일한 시간 관계인 현재시제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본동사가 과거이고 to-부정사가 단순형(현재형)일 때 to-부정사는 본동사와 동일한 시간 관계인 과거시제를 나타낸다. 또한 본동사의 특성에 따라 바람, 기대, 소망 등을 나타내는 동사는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3) 영어에서 부정사는 ‘to 있는 부정사’와 ‘to 없는 부정사’로 나뉜다. ‘to 없는 부정사’는 주로 조동사 뒤, had better 등과 같은 관용 표현 뒤,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뒤에 쓰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to 있는 부정사’가 쓰인다.

4) 시제(tense)란 동사가 나타나는 동작이나 상태의 시간적 구분을 표시하기 위한 동사의 형태(어형변화)를 말한다. Jespersen(1924)에 의하면 시제를 동사형식에 나타나는 것으로 ‘시간 관계의 언어적 표현’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는 시간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쓰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 a. He seems to be sick. (present)

= It seems that he is sick.

b. He seems to study hard. (present)

= It seems that he studies hard.

c. I expect him to come. (future)

= I expect that he will come.

위의 (1a)에서 본동사 *seems* 는 현재이고 to-부정사는 단순형이므로 *to be* 는 동일한 시간 관계인 현재를 나타내고, 마찬가지로 (1b)의 본동사 *seems* 가 현재이고, to-부정사가 단순형이므로 to-부정사 *to study* 는 본동사와 동일한 시간 관계인 현재를 나타낸다. 반면 (1c)의 본동사 *expect* 는 동사의 특성상 미래의 사건을 기대하는 것이므로 to-부정사 *to come* 이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 즉 기대 동사 *expect* 가 쓰였으므로 *will come* 이 되는 것이다.

### 1.1.2. To-부정사의 완료형

To-부정사의 완료형(perfect forms)은 ‘to+have+p.p’ 로, to-부정사가 본동사가 나타내는 시간보다 한 단계 이전(before-past)의 시간 관계를 나타낸다. 이것은 본동사가 현재일 때는 과거시제가 되고, 본동사가 과거일 때는 한 단계 이전의 시제인 ‘had+p.p’ 가 된다.

(2) a. He is glad to have saved money. (past)

= He is glad that he saved money.

b. He seemed to have been rich. (before-past)

= It seemed that he had been rich.

위의 예문 (2a, b)는 to-부정사의 완료형인 ‘to+have+p.p’ 가 쓰였으므로, (2a)

에서 to-부정사 *to have saved* 가 본동사 *is* 라는 현재시제보다 앞선 시제를 나타내므로 과거형 *saved* 가 된다. 그리고 (2b)에서 to-부정사의 완료형 *to have been* 이 to-부정사의 본동사 *seemed* 라는 과거시제와 함께 쓰여 한 단계 앞선 시제인 과거완료(had+p.p)를 나타내므로 *had been* 이 된다.

미래 완료<sup>5)</sup>(will/shall+have+p.p)를 나타낼 때, expect, hope, intend, will, wish 등과 같은 의도, 바램, 기대 등을 표시하는 동사 뒤에 ‘to+have+p.p’ 형태의 완료부정사를 나타내기도 한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3) a. He expects to have finished the work tomorrow. (미래완료)

= He expects that he will have finished the work tomorrow.

b. I hope to have made this house next week. (미래완료)

= I hope that I shall have made this house next week.

위의 예문 (3a)에서 *expects* 라는 기대를 나타내는 동사 뒤에 ‘to+have+p.p’ 형태의 완료부정사 *to have finished* 가 쓰여 ‘그가 내일 그 일을 끝내기를 기대한다’란 뜻으로 to-부정사가 미래완료를 나타내어 *will have finished* 가 된다. 그리고 (3b)에서 바램을 나타내는 동사 *hope* 뒤에 ‘to+have+p.p’ 형태의 완료부정사 *to have made* 가 쓰여 to-부정사는 미래완료인 *shall have made* 가 된다.

Expected, intended, wanted, wished, hoped 등의 기대, 의도, 희망 등을 나타내는 동사의 과거형과 ‘to+have+p.p’ 형태의 완료부정사가 함께 쓰이면 과거에 이루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다(Jespersen 1939).

(4) a. He hoped to have succeeded. (past)

= He hoped to succeed, but he did not.

---

5) 미래완료(future perfect)는 미래의 어느 일정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부터 그 때까지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의 ‘경험의 완료’, ‘결과의 완료’, ‘계속의 완료’, ‘막 끝난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고, by this time, tomorrow, next week, next month, one of these days 등의 부사(구)를 동반한다.

b. He intended to have come earlier. (past)

= He intended to come, but he did not.

위의 예문 (4a)는 희망을 나타내는 동사의 과거형 *hoped* 가 ‘to+have+p.p’ 형태의 완료부정사와 함께 쓰여 *to have succeeded* 가 되고, “그는 성공하기를 바랬지만, 이루지 못했다” 라는 과거에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나타내어 ‘..but he did not’ 의 의미가 된다. (4b)에서는 의도를 나타내는 동사의 과거형 *intended* 와 완료부정사 *to have come* 이 쓰였으므로 ‘그가 일찍 오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못했다’ 는 뜻을 가지며, 과거에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나타내어 ‘..but he did not’ 의 의미가 된다.

## 1.2. To-부정사의 시제

To-부정사는 ‘to+동사원형’ 과 ‘to+have+p.p’ 자체만으로는 시제가 나타나지 않지만, 본동사(main verb)와 단순형과 완료형이라는 to-부정사의 상(aspect)과의 관계를 통해서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 즉 본동사의 시제와 상 속에서 시제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5) a. John wants to go there.

b. John wanted to go there.

위의 예문 (5)를 보면 부정사의 단순형 *to go* 가 나타내는 시제의 의미는 미래<sup>6)</sup>나 과거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to go* 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5a)의 *to go* 는 아직 이동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사건이거나 적어도 현재보다는 앞선 시간의 사건을 나타낸다. 또한 (5b)의 *to go* 역시 현재의 시간이거나 아니면 발화시<sup>7)</sup>보다는 과거의 시간을 나타낸다. 즉 (5a, b)의 *to go* 는 형태상

---

6) Poutsma(1926)는 좀 더 체계적으로 시제라는 문법현상을 다루고 있는데 세 가지의 주요한 시간영역의 구분에 따라 현재, 과거, 미래시제를 인정하고 있다.

아무런 변화도 없지만, 다른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5a)의 *to go* 는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고, (5b)의 *to go* 는 발화시보다는 미래의 시간 즉 과거의 시점에서 보는 미래의 시점을 나타낸다.

시제는 언어로 묘사되는 상황의 시간과 발화시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동사의 형태이다. 어떤 사건의 발화시를 포함하는 현재 영역에 일어나는 것이나 현재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어에서는 두 개(현재, 과거)의 시제만을 인정한다. 문법 범주(grammatical category)를 위해 형태와 의미 내용을 그 설정요건으로 여긴다면 확실히 미래형은 의미 내용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해주는 고유의 형태를 갖지 못한다. 시제를 논함에 있어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자연적인 시간(time)<sup>8)</sup>과 문법적인 시제(tense)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현재시간을 영어에서 어떤 시제로 나타내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언어상의 현재시간은 순간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에서부터 불변의 진리를 나타내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언급되는 시간의 폭이 다양하다.

과거시간을 영어에서 어떤 시제로 나타내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물론 대표적인 표현 수단은 과거시제이다. 한편 과거 시는 현재시제에 의해서도 표현된다. 여기에는 ‘역사적 현재형’이란 용법이 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현재 시제로 나타냄으로써 과거사를 보다 가깝게 현재로 끌어당긴다. 과거시간은 과거시제 뿐만 아니라 현재시제에 의해서도 표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래시간을 영어에서 어떤 시제로 나타내는가에 대해 알아보면, 영어에서의 미래시간은 *will*, *shall* 등의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을 사용하는 ‘*will/shall*+동사 원형’ 형태의 표현 양식이 대표적인 것이다. 영어에서는 현재시제가 미래시간을 나타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사구에서의 현재형이 미래시간을 나타낸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명령문은 그 성격상 미래시간을 나타내기 마련이다. 영어에서의 미래시간은 현재형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과거형에 의해서도 표현된다.

---

7) Reichenbach(1947)는 시점을 발화시(Point of speech, S), 사건시(Point of event, E), 기준시(Point of reference, R)의 3개의 시점으로 구별하고 있다.

8) Jespersen은 시간(time)과 시제(tense)라는 두 개념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시간은 개념적인 것이며, 보편적이고 연속성과 일관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시제는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문법 범주(grammatical category)이기에 언어마다 다르며 이질적인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조성식, 1974: 292).



이른바 가정법<sup>9)</sup>(subjunctive mood)이라고 하는 용법이다.

(6) a. I wish he could send the money tomorrow.

b. I will go picnic if it is sunny tomorrow.

위의 예문 (6a)는 *wish* 를 사용한 가정법으로 *could* 라는 과거형이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부사 *tomorrow* 와 함께 쓰여 “나는 그가 내일 돈을 보내기를 바란다”란 뜻의 미래시간을 표현하고 있고, (6b)는 *if*를 이용한 가정법으로 *if*절의 현재형 동사 *is* 가 미래시간을 나타내어 “내일 날씨가 화창하다면 나는 소풍을 갈 것이다” 라는 미래시간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즉 조건절(conditional clause)에서는 현재동사가 미래를 대신한다.

과거 이전 시간은 ‘had+p.’ 형태의 과거완료로 표시된다. 과거 이후 시간은 어떤 언어에도 이를 위한 범주(category)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 없다. 미래 이전 시간은 영어에서는 ‘will(shall)+have+p.p’ 라는 표현 방법을 사용한다. 현재, 과거라는 영어의 두 시제(tense)가 어떤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지를 보면, 현재라는 시제가 현재시간을 나타내기 보다는 오히려 다른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일이 더 많기 때문이다. 현재시제(simple present tense)가 나타내는 시간 개념을 보면, 현재의 동작이나 상태, 일상적 습관이나 반복적인 동작(행동), 일반적인 사실이나 불변의 진리, 과거의 사실을 생생하게 묘사할 때 등이 있고, 두 번째로 과거시제(simple past tense)가 나타내는 시간 개념으로 과거의 행위나 상태, 과거 이전 시간, 과거의 습관적 동작, 과거의 역사적 사실 등이 있다.

---

9) 가상법(假想法)이라고도 한다. ‘만일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만일 실패할 경우에는’ 등의 사실과 관계 없는 심정을 표현할 때 쓰이며, 사실을 서술하는 직설법(indicative mood)에 대응하는 표현방법이다.

### 1.2.1. To-부정사의 과거시제

To-부정사의 과거시제는 본동사(main verb)의 시제(tense)와 상(aspect)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할 수 있다. 즉 본동사가 과거이고 to-부정사가 ‘to+동사원형’ 형태의 현재형(단순형)이면 to-부정사는 과거를 나타내고, 본동사가 현재이고 to-부정사가 ‘have+p.p’ 형태의 완료형이 쓰이면 본동사보다 한 단계 앞선 시제를 나타내므로 아래의 예문처럼 과거시제를 나타낸다.

- (7) a. He seemed to be sick. (past)  
= It seemed that he was sick.
- b. He seems to have been sick. (past)  
= It seems that he was sick.

위의 예문 (7a)의 본동사 *seemed* 가 과거이고 to-부정사의 단순형인 ‘to+동사원형’ 이 쓰였으므로, *to be* 는 본동사와 동일한 시제를 나타내어 과거시제 *was* 가 된다. 그리고 (7b)의 본동사 *seems* 가 현재형이고, ‘to+have+p.p’ 형태의 to-부정사의 완료형 *to have been* 이 함께 쓰였으므로 본동사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인 과거시제 *was* 가 된다.

### 1.2.2. To-부정사의 현재시제

To-부정사의 현재시제도 to-부정사의 과거시제와 마찬가지로 본동사의 시제와 상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할 수 있다. 즉 본동사가 현재이고 to-부정사가 ‘to+동사원형’ 형태의 현재형(단순형)이면 to-부정사는 현재를 나타낸다.

- (8) a. He seems to be happy. (present)  
= It seems that he is happy.

b. He seems to be tired. (present)

= It seems that he is tired.

위의 예문 (8a)의 본동사 *seems* 가 현재이고 to-부정사가 ‘to+동사원형’ 형태의 단순형이므로 *to be* 는 본동사와 동일 시제를 나타내어 현재시제인 *is* 가 되고, 마찬가지로 (8b)의 본동사 *seems* 는 현재이고 to-부정사는 ‘to+동사원형’ 형태의 단순형이므로 *to be* 는 본동사와 동일 시제인 현재시제 *is* 가 된다.

이처럼 To-부정사는 본동사의 시제(tense)와 상(aspect)을 통해서 시제가 표현됨을 알 수 있다. To-부정사의 본동사와 단순형과 완료형이라는 상과의 관계 속에서 과거시제와 현재시제가 나타나듯이, 또 다른 상(aspect)인 진행상에도 시제가 나타날 것이다. To-부정사의 진행형(to+be+V-ing)에서 시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시제와 진행상과의 관계를 상(aspect)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부정사는 동사원형에 'to'가 붙는 to-부정사(to-infinitive)와 동사원형을 그대로 쓰는 'to'가 없는 부정사(bare infinitive)로 나뉜다. 부정사의 어원은 Latin어의 infinitivus에서 파생된 infinitus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부정사가 인칭이나 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조성식 1983).

원형부정사<sup>10)</sup>와 달리 to-부정사는 자신만의 뜻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to-부정사는 완전한 굴절 어미를 가진 동사적 명사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굴절어미가 탈락되면서 현대에서는 동사의 원형과 같은 형태가 되었다. 부정사는 명사적 성격보다 동사적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부정사 앞에서 관사, 형용사 등을 사용할 수 없고, 부정사 자체가 동사처럼 목적어를 취할 수 있으며, 형식상의 주어를 취할 수 있고,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제형(tense form)과 태형(voice form)을 가지므로 부정사의 동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o-부정사는 비한정 동사(non-finite verb)이기 때문에 한정 동사(finite verb)처럼 형태상으로 큰 제약을 받지 않는다. To-부정사는 단순형과 완료형이라는 단

---

10) 원형부정사(bare infinitive)란 ‘to’ 없이 동사의 원형만을 가지고 부정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See, hear, feel, watch 등의 감각/지각동사나 make, have, let 등의 사역동사가 문장의 본동사로 오고 원형부정사가 목적격보어로 사용될 때이다.

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동사의 성질을 닮아 시제(tense)와 태(voice)를 가지고 있다. 비한정 동사일지라도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단순형(현재형)과 완료형, 능동형과 수동형으로 나뉜다. 이렇듯 시제(tense)와 상(aspect)의 결합으로 사건의 진행 상태를 좀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고 시간 표시를 가능하게 하므로 상이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to-부정사의 경우, 단순형<sup>11)</sup>과 완료형에 따라 본동사의 시제와의 관계 속에서 문장의 시제를 나타낼 수 있기에 상이 꼭 필요하다 하겠다. 즉 시간(time)과 시제(tense)의 관계가 상(aspect)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2. 상(Aspect)

상(Aspect)이란 어떤 문장이 담고 있는 사건(상황)이 시작, 진행, 완결 등과 관련하여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문법적 기제(수단)라고 할 수 있다. 시제는 두 상황이 서로 관련되고 한 상황이 다른 상황에 대해 가지는 선후 관계에 따라 과거, 현재로 구분되지만, 상(Aspect)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사건을 보는 시각으로 어떤 동일한 물건이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진행 중’이라는 진행상은 과거나 현재, 미래 등 어느 시점에서든 나타날 수 있다. 즉 과거진행형, 현재진행형, 미래진행형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형이라는 것이 특정한 시점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즉 상(Aspect)은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 중 하나로, 이는 하나의 사건을 시작과 끝이 있는 개념으로 본기 때문에 이는 과거, 현재, 미래 등 특정한 시점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 2.1. 상(Aspect)의 분류

상(Aspect)은 문법적 상(grammatical aspect)과 어휘적 상(lexical aspect)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본래 ‘Aspect’라는 말은 각 언어들에서 의미론적인 영역이

---

11) Kruisinga(1931)에 의하면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시제(tense)를 현재형과 과거형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라기 보다는 문법적인 범주와 관련시켜서 제한된다. 즉 semantic이나 lexical보다는 grammatical한 영역이다. 문법적 상(grammatical aspect)은 끝나지 않은 사건(event)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는 진행상(progressive)<sup>12)</sup>과 완료상(perfect)이 있고, 이처럼 문법적 상은 진행형이나 완료형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단어 고유의 뜻이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어휘적 상(lexical aspect)은 순간상, 계속상, 종지상, 반복상, 결과상, 동작상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아래 (9)에서 살펴보자.

(9) 어휘적 상의 분류

- a. 순간상 - state, die, shoot, leave, forget, remember, begin 등.
- b. 계속상 - 계속상의 대표적인 문법 범주는 진행형이다.  
be, know, like, live, share, love, remain, continue, see, hear, have, understand 등.
- c. 종지상 - 일정한 시간 동안에 시작되어 끝이 나는 동작을 나타낸다.  
read, write, sit, stand, tell, sing, draw, look, eat, build 등.
- d. 반복상 - 반복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ex) He kept looking back as he ran.
- e. 결과상 - 동사 뒤에 Comrie가 ‘결과의 불변화사’ 라고 부르는 부사를 첨가하여 만든 동사구들이다.  
come out, fall out, give up, clean up, fall through, fall down, knock out, put down, pass down 등.
- f. 동작상 -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다른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시키지 않고, 동일한 상황 속에서 그 사건이 끝났느냐, 진행되느냐, 반복되느냐를 따지는 것을 말한다.

---

12) 영어의 경우, 동사구의 형식면에서 상의 구별이 가능한 것은 현재분사를 쓰는 진행상(imperfect or durative aspect)과 과거분사를 쓰는 완료상(perfect or completive aspect)이 있을 뿐, 다른 상적인 개념들은 동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시제, 문맥상황과 관련되어 있다(우석관, 1991).

동사의 의미적 분류 방법 중 잘 알려진 상적 분류는 일반적으로 영어의 동사를 사건성(eventuality)에 따라 상태(state), 행위(activity), 그리고 사건(event)과 같은 상으로 구분하고, 사건 자체는 완수(accomplishment)와 달성(achievement)으로 구분된다(Vendler, 1967).

Givón(2001)에서는 완결상(perfective)과 미완결상(imperfective) 이외에 완료(perfect)를 기본 문법상으로 설정하고 미완결상을 다시 진행상(progressive), 지속상(durative), 습관상(habitual), 반복상(iterative)으로 나누고 있다. 기본상을 세 가지로만 설정하고 그 밖의 상을 그 하위범주로 다루려는 점에서 Comrie와 같다.

(10) Givón(2001)에서의 문법상 분류

- a. perfective (완결상)
- b. imperfective (미완결상)
  - b-1. progressive-durative-continuous (진행-지속-계속상)
  - b-2. habitual-repetitive (습관-반복상)
- c. perfect (완료상)

영어의 경우 문법상은 주로 진행상이나 완료상, 예정상이라는 문법 범주(grammatical category)의 형태를 빌어 표현되는 것이 보통이며, 그 밖에 부사를 비롯한 여러 표현 수단을 이용해서 표현되는 것이 보통이다.

시제<sup>13)</sup>의 구분은 그 사건시(event time)와 발화시(speech time)의 전·후 관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게 된다. 즉 발화시가 먼저이고 사건시가 나중이라면 말을 먼저하고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것이므로 미래 시제가 된다. 반대로 사건시가 먼저이고 발화시가 나중이면, 먼저 일어난 사건에 대한 말을 나중에 하는 것이므로 과거시제가 된다. 그리고 발화시(speech time)와 사건시(event time)가

---

13) Lyons(1968)는 시제를 생성의미론의 관점에서 보는데 문장에서 언급된 상황(사건, 동작, 상태)의 시간과 발화시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시제라고 말한다.

동일 시점이라면 바로 현재 시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동작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동작상<sup>14)</sup>에는 진행형과 완료형이 있다. 즉 발화시를 기점으로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완료된 상태인지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

### 2.1.1. 문법적 상(grammatical aspect)

동사가 자체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상황)의 여러 가지 양상이 어휘적 상이라고 한다면 문법적 상이란 하나의 문장 안에서 다양한 문법적 기제를 통해 나타나는 사건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기술에서 상(aspect)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문법적 상을 말하며 영어의 진행상(progressive), 완료상(perfect)이 잘 알려진 예이다. Smith(1991)는 상을 크게 상황상과 관점상으로 나누고 있는데, 상황상은 어휘상에 해당하고 관점상은 문법상에 각각 해당한다. 상을 소수의 기본상과 그 하위 범주로 구분하는 Comrie(1976)나 Givón(2001)에서 말한 것과 달리 Dahl(1985)은 상의 범주를 세분화하여 여러 가지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이들과 차이를 보인다.

#### (11) Dahl(1985)의 문법상 분류

- a. Perfective<sup>15)</sup> (완결상)
- b. Imperfective (미완결상)
- c. Progressive (continuative: 진행상)
- d. Conclusive (종결상)

---

14) Reichenbach(1947)는 세 가지 시간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발화의 행동이 시작되는 시간인 발화시(speech time), 발화내용 속에 관련된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나는 시간인 사건시(event time), 문장이나 절에서 두 사건의 관계를 표시할 때 서술된 주된 동작이 시간관계와 다른 시간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화자의 선택적인 시간인 기준시(reference time)가 바로 그것이다.

15) 'perfect(완료상)'와 'perfective(완결상)'는 또 다른 대비되는 언어학적 용어와 비교해서 매우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먼저 'perfective'는 'imperfective'와 대비되는 용어로서, 그것의 전체성 속에서 본 한 시점을 나타내며 내적인 시간적 연속성과는 관련이 없다. 반면에 'perfect'는 현재와의 관련성을 갖는 과거의 한 시점과 관련된다. 즉 과거 사건에 대한 현재의 결과이다. 'perfective'라는 용어를 대신해서 어떤 학자들은 'aoristic'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aorist'라는 용어는 과거시제에서의 완료성(perfectivity)을 나타내는데 제한되는 용어이다.

- e. Habitual and generics (습관-총칭상)
- f. Perfect (완료상)
- g. Experiential (경험상)

Heine(2005)는 세계의 언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문법상으로 아래 (12)와 같이 9가지를 들고 있다. 상(aspect)을 소수의 기본상과 그 하위범주로 구분하지 않고 다수의 보편상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Heine은 Dahl(1985)과 입장을 같이 한다.

(12) Heine(2005)의 문법상 분류

- a. Progressive (continuative: 진행상)
- b. Proximative (근접상)
- c. Iterative (repetitive: 반복상)
- d. Habitual (습관상)
- e. Completive (종결상)
- f. Resultative (결과상)
- g. Perfect (완료상)
- h. Perfective (완결상)
- i. Imperfective (미완결상)

2.1.1.1. 완결상(perfective)과 미완결상(imperfective)

현대 언어 연구에서 문법적 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Comrie(1976)에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 그는 상을 우선 완결상(perfective)과 미완결상(imperfective)으로 나누고 미완결상은 다시 습관상(habitual)과 계속상(continuous)으로 나뉜다. 계속상은 다시 진행상(progressive)과 비진행상(non-progressive)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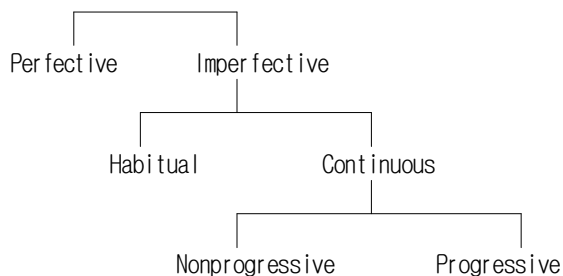


- (13) a. She is writing a letter. (현재진행)  
 b. She was writing a letter. (과거진행)  
 c. She will be writing a letter. (미래진행)  
 d. She has written a letter. (현재완료)  
 e. She had finished the work. (과거완료)

위의 예문 (13a, b, c)를 보면 'be+V-ing' 형태의 진행상(progressive)을 나타내고 있다. (13a)의 *is writing* 은 “그녀는 편지를 쓰고 있다” 라는 현재진행을 나타내고 있고, (13b)의 *was writing* 은 “그녀는 편지를 쓰고 있었다” 라는 과거진행을 나타내고 있으며, (13c)의 *will be writing* 은 “그녀는 편지를 쓰고 있을 것이다” 라는 미래진행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13d)은 'have+p.p' 형태의 현재완료형 *has written* 이 쓰였으며 “그녀는 편지 한통을 썼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13e)는 'had+p.p' 형태의 과거완료형 *had finished* 가 쓰였으며, “그녀는 그 일을 끝마쳤었다” 라는 뜻을 나타낸다.

상(aspect)은 언어에 따라 달리 나타나며 상이 잘 발달해 있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상이 거의 발달해 있지 않는 언어도 있다. 러시아어는 상이 잘 발달한 언어이고 독일어의 경우 상의 개념이 거의 없다. 이와 관련하여 Bhat(1999)는 세계의 언어를 상(aspect)중심 언어, 시제(tense)중심 언어, 법(mood)중심 언어로 구분하기도 한다. 현대 언어연구에서 문법적 상(grammatical aspect)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Comrie(1976)에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 다음은 Comrie(1976)의 상체계이다.

(14) Comrie(1976)의 상체계



위 (14)는 Comrie(1976)의 2분법적(binary)인 구조<sup>16)</sup>를 나타낸 것으로 Comrie(1976)는 상(aspect)을 우선 완결상(perfective)과 미완결상(imperfective)으로 나누고 미완결상은 다시 습관상(habitual)과 계속상(continuous)으로 나눈다. 그리고 계속상은 다시 진행상(progressive)과 비진행상(non- progressive)으로 분류한다. 완결상(perfective)과 미완결상(imperfective)의 구분은 상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영어나 우리말에서 문법적으로 이러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언어에만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분이 쉽지 않다.

(15) a. What did he do after school yesterday?

b. He wrote letters. (atelic)

c. He wrote a letter. (telic)

위 예문 (15a)처럼 ‘그는 어제 방과 후에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의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그가 그 당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이 때 대답으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면 된다. 이런 것이 (15b)처럼 미완결상(imperfective)을 써서 대답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15c)는 “편지 한 장을 썼다”라고 대답하는 상황으로, 이 경우 편지를 쓴 행동은 마무리(완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일(사건)이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는 완결상(perfective)이 사용된다.

위 (15b, c)를 보면, 명사의 수에 따라 동사 술어의 종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Write, build, eat와 같은 동사들은 그 대상 논항(theme argument)이 가산명사일 때는 종결(telic) 속성을 갖고, 동일한 논항이 질량명사나 복수일 때는 미종결(atelic) 속성을 나타낸다. (15b)에서 *letters* 라는 명사의 복수형이 쓰였으므로 여기서의 *wrote* 는 미종결(atelic) 의미의 행위동사라 할 수 있다. (15c)에서는 *a letter* 라는 명사의 단수형이 쓰여서 편지가 써지면 어떤 지점에서는 쓰는 사건이 반드시 끝나는 사건을 지시하므로 종결(telic)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복수명사를 쓸 경우 보통 ‘쓰는 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추

---

16) 게르만어는 대개 2분(binary)체계 언어에 속하고 라틴어를 비롯한 로맨스어는 3분(ternary) 체계 언어이다(Hewson & Bubenik, 1997: 26). 현재형과 과거형만 있는 언어의 경우 현재형이 미래를 함께 나타낸다.

어저서 미완결의 의미를 갖고, 단수명사를 쓸 경우는 ‘(편지) 한 통을 썼다’ 는 의미로 편지 쓰는 행위의 종결점을 가지므로, 종결의 의미를 나타낸다.

#### 2.1.1.1.1. 진행상(progressive)

Comrie는 진행상에 대해 ‘진행형에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progressive(진행) 그 자체의 의미 뿐만 아니라, contingent(임시적/우발적)의 의미이다.’ 라고 말한다. 비진행 미완결상은 진행형으로 나타나지 않는 일반적인 미완결상(imperfective)을 말하고, 진행형은 영구적 상태를 나타내는 단순 시제와 달리 진행중인 동작 상태가 일시적인 상황이므로 제한적 지속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예컨대 ‘*What do you do ?*’ 와 ‘*What are you doing ?*’ 의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 전자는 단순 시제로 영구적인 상태를 나타내므로 ‘직업에 대한 것’ 을 묻는 것이고, 후자는 진행형으로 일시적 상황(활동)에 대해 묻는 것이다.

진행형 ‘be+V-ing’와 완료형 ‘have+p.p’의 상(aspect)적 의미를 보면, 진행형 ‘be+V-ing’의 ‘be’ 는 조동사 의미 이외에 계속과 존재의 의미가 있고, ‘V-ing’ 는 계속의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즉 계속은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행위(activity)를 의미하기 때문에 진행상의 강한 의미는 계속의 뜻이다(Scheffer 1975).

(16) a. I am playing the guitar. (진행상)

b. She is singing with her mother. (진행상)

위 예문 (16a)의 *am playing* 은 ‘~ 를 연주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be+V-ing’ 형태의 진행상을 나타내고, (16b)의 *is singing* 은 ‘~ (노래)를 부르고 있다’ 라는 뜻으로 진행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16a, b) 둘 다 진행상(progressive)으로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2.1.1.1.2. 완료상(perfect)

영문법에서는 완료라는 형식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를 완료상(perfect)이라 한다. Comrie(1976), Dahl(1985), Smith(1991)등이 이에 대해 연구했으며, 완료상 'have+p.p' 형태 또한 굴절 형태와 우연적(periphrastically) 표현으로서 시간 요소와 결과 요소의 이중적 성질을 나타낸다(Jespersen 1924). 완료상(perfect)의 상적 의미는 현재와의 관련성이 제일 중요한 의미로 판단된다(Palmer 1974).

(17) a. He seems to have studied english.

b. He seems to be written.

라틴어와 그리스어에서 부정사에 태와 시제는 표시되었으나 수와 인칭이 표시되지 않아, 불완전 서법이나 비명시적 서법으로 인식되었다. 위의 예문 (17a)를 보면, 'to+have+p.p' 형태의 완료형이 쓰여 *to have studied* 가 되었고 (17b)는 'to+be+p.p' 형태의 수동태가 쓰여 *to be written* 이 되었다. 이와 같이 부정사에서 (17a, b)처럼 상(aspect) 표시가 가능하듯이 태(voice)의 표시도 가능하다.

Comrie는 영어 완료형을 네 가지 용법<sup>17)</sup>으로 나누고 이를 아래의 (18)과 같이 완료상의 네 가지 유형(결과, 경험, 계속, 완료)으로 나누고 있다.

(18) Comrie의 완료형의 4가지 유형

a. 결과 (perfect of result)

b. 경험 (experiential perfect)

c. 계속 (perfect of persistent situation)

---

17) Comrie(1932)의 경우 네 개의 절대 시제(absolute tenses: present, past, present perfect, future)와 두 개의 상대 시제(relative tenses: past perfect, future perfect)를 인정하였다. 절대시제는 다른 행동을 참조함이 없이 화자가 말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삼고, 상대시제는 절대시제에 관련지어 상대적 시간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완료형은 시제범주에 포함시키고 진행형은 상(aspect)이라는 범주가 갖는 여러 상징적인 의미들 중 지속상(durative aspect)을 갖는 것으로 시제라는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상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d. 완료 (perfect of recent past)

아래 (19)의 예문들은 위의 (18)에서 보여준 완료상의 네 가지 용법에 대한 것이다. (19a)는 ‘그녀는 일본에 가버렸다’는 뜻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19b)는 ‘그녀가 일본에 간 적 있다’는 뜻으로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19c)는 ‘그녀가 2년 동안 쪽 여기서 살아 왔다’는 뜻의 계속을 의미하고, (19d)는 ‘그녀가 막 도착했다’는 뜻의 완료를 나타내고 있다.

- (19) a. She has gone to Japan. (결과)  
b. She has been to Japan. (경험)  
c. She has lived here for two years. (계속)  
d. She has just arrived. (완료)

Dahl(1985)은 네 가지 의미를 완료상의 유형이라기보다 완료상의 네 가지 용법(types of uses)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Anderson(1982)의 경우 완료형을 하나의 상으로 설정하며 언어에 따라 그 용법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이 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료상(perfect)에 대해 학자에 따라 조금씩 견해가 다르기는 하지만 최근 하나의 독립된 상 범주로 설정하고 있다. 이들은 완료상을 결과상 및 경험상과 구별하려는 경향이 있다(Lindstedt, 2001).

### 2.1.2. 어휘적 상(lexical aspect)

어휘적 상이란 어휘(술어)의 의미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상적인 요소를 말한다. 이는 독일학자 Brugmann(1911), Breu(1984), Sasse(1991)에 의해 논의가 되었으며, 독일어로 이를 행위상이라고 부른다. 어휘상에 따라 Sasse(1991)등은 동사를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20) Sasse(1991)의 어휘상에 따른 동사의 분류

- a. 행위동사 -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이 분명한 술어(동사)를 말한다.  
work, eat 등의 동사가 여기에 속한다.  
ex) He worked for 2 hours.
- b. 완전상태동사 -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이 분명하지 않는 동사를 말한다. resemble, weigh, remember, contain 등.  
ex) She remembered the story.
- c. 기동상태동사 - 시작하는 시점이 분명한 상태동사(술어)를 말한다. 즉 이 술어들은 특정한 시점에서 해당 상태로의 진입 과정이 있고, 이후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be warm, know 등.  
ex) He knew that the news is true.
- d. 점진적 종결동사 - 시작하는 시점이 불분명하며 상태가 점진적으로 종결되는 경우이며, die 등이 이에 속한다.  
ex) He died last week.
- e. 순간종결동사 - 사건이 순간적으로 일어나 시작점과 종결점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fall down, explode 등.  
ex) He fell down on the street.

학자들 사이에서는 Vendler(1967)의 동사 분류가 자주 인용되고 있다. Vendler는 아래 (21)과 같이 하나의 술어가 어휘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이 사건이나 상태가 갖는 시간적 특성을 상적 특성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상(aspect)적 특성에 따라 상태(state), 행위(activity), 완수(accomplishment), 달성(achievement)이라는 네 가지 유형의 상적 의미를 분류하고 있다. 어휘적으로 상태(state)와 행동(activity)을 나타내는 동사는 atelic(미종결성)의 의미<sup>18)</sup>를 갖는 반면 완수(accomplishment)와 달성(achievement)을 나타내는 동사는 telic(종결성)의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한다.

---

18) Dynamic verbs(동작동사)는 durative(지속성), punctual(순간성), telic(종결성), atelic(미종결성)이라는 의미구별 요소들을 기초하여 여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21) Vendler(1967)의 어휘상에 따른 동사의 분류

- a. State(상태) -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꾸준한 상태.  
resemble, love, live, know, contain 등.  
ex) He loves ice cream.
- b. Activity(행위) - 자연스러운 ending point가 없는 과정.  
run, write, watch, snow, seek 등.  
ex) John is writing a report.
- c. Accomplishment(완수) - 자연스러운 ending point가 있는 과정.  
grow up, run a mile, cover, walk a mile, bake a cake 등.  
ex) He walked a mile.
- d. Achievement(달성) - 새로운 상태의 소산으로 오는 상태의 순간적 변화를 말한다. find, stop, reach, win, leave, recognize, break 등.  
ex) She won the race.

Smith(1991)는 동사를 이와 같이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같은 동사라도 목적어나 부사에 따라 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영어의 'run' 이라는 동사는 단순한 행위동사이지만 'run a mile' 하면 달성상을 나타낸다. Smith는 이에 따라 어휘상이라는 용어 대신 상황류(situation types)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동사구 전체가 나타내는 상을 말한다. Bhat(1999)는 이를 동사구 상이라고 부르고 있다.

(22) Smith(1991) 상황상의 예

- a. States - be happy, believe, hope, fear, know 등.
- b. Activities - stroll in the park, laugh, revolve, eat cherries 등.
- c. Accomplishments - bend an iron bar, wrinkle a dress 등.
- d. Semelfactives - John deliberately coughed, Knock on the door 등.

e. Achievements – break a cup, tear a paper 등.

Smith의 상황류(situation types)는 Vendler의 동사분류와 큰 차이가 없으나 순간단순행위(semelfactives)를 별도의 범주로 설정하는 것이 다르다. 순간단순행위란 순간적 비종결적 행위를 말하며 종결점이 없다는 것이 성취동사와 다르다. 'cough', 'knock' 등이 그 예이다.

(23) a. She walked yesterday.

b. She walked to the church yesterday.

위 (23)에서 동사 *walk* 는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의 행위를 지시한다. 즉 문장 자체는 행위의 시간적 정보를 주지 않지만, 지시적<sup>19)</sup>(deictic)으로는 과거에 완료된 사건을 나타낸다. (23a)의 *walked* 는 ‘걸었다’ 는 행위(activity)를 지시하고, (23b)의 *walked* 는 (23a)와 동일한 정보를 가지지만, ‘~ (으)로 걸어갔다’ 라는 뜻으로 그녀가 자신의 걸은 행위를 종료한 정보(종료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즉 행위(activity) 자체는 그녀가 교회에 도달했을 때 종료되며, 이러한 유형의 문장을 완수사건(accomplishment event)을 지시하는 것으로 본다. 이처럼 어휘적으로 완수를 나타내는 동사는 build, destroy 등이 있다.

(24) a. She played the piano.

b. She played the song in 5 minutes.

위의 예문 (24)의 *play* 와 같은 수행동사들(performance verbs)은 보충어의 구조에 따라 (24a)와 같이 행위(activity)를 나타낼 수도 있고, (24b)와 같이 완수(accomplishment)를 나타낼 수도 있다. 완수동사를 점검하기 위해 *in 5 minutes*

---

19) Comrie는 ‘시제가 말하는 순간과 관련하여 상대적인 기점의 시간을 표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제를 지시적(deictic)이라고 묘사한다’ 고 하였다.



와 같은 시간부사로 수식해 볼 수도 있다. 완수동사는 이와 같이 시간부사로 수식되지만, 행위동사는 그렇지 않다.

(25) a. He died at 5 pm yesterday.

b. The bus arrived at five.

동사의 상(aspect)적 분류 중 달성(achievement)은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달성동사는 위 예문 (25a)의 동사 *died* 처럼 *at 5 pm* 등의 시간부사에 의해 수식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25b)의 *arrived* 도 *at five* 의 수식을 받고 있는 달성동사(achievement verb)이다.

습관상(habitual)이란 문자 그대로 어떤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것이 별도의 상으로 문법화 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Dahl, 1985) 대개 미완결상의 한 가지 용법으로 나타난다. 습관상이 문법화 된 예는 아래 (26)과 같이 '*used to*' 구문에서 볼 수 있다(Comrie, 1976).

(26) a. He used to play here.

b. He used to live in Seoul.

위의 예문 (26a)는 *used to* 를 사용하여 '~ 하곤 했었다' 라는 습관을 나타내고 있고, (26b)는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는 뜻으로 *used to* 를 사용하여 '~에서 살았었다' 는 습관상을 나타내고 있다.

Dahl(1985)은 습관상(habitual)과 반복상(iterative)을 구분하지 않으나 Comrie(1976)는 이 둘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27) a. He coughed five times.

b. He knocked three times.

Comrie는 위 (27a)와 (27b)의 예문에 쓰인 *coughed* 와 *knocked* 와 같은 동사는 반복상(iterative)을 나타내는 순간동사로, 이는 습관상(habitual)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한다.

## 2.2. 상(aspect)의 의미

사건의 진행이나 완료를 나타내는 부사구에 의하여 표현되는 경우에는 한정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사용되면 완전상으로 해석되고 무한정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사용되면 불완전상으로 해석된다. 동사 불변화사<sup>20)</sup>에 의해 나타내는 상 표현은 진행의 의미를 갖는 ‘on’ 은 불완전상을 나타내고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up’ 이나 ‘out’ 과 같은 동사 불변화사등은 완전상을 나타낸다.

상황의 시간과 관련된 내부적 모습인 상(Aspect)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주제이다(Garey 1957, Vendler 1967, Anderson 1973, Comrie 1976, Smith 1991 등). To-부정사의 시제와 상의 관계 속에서 문장 속에 나타난 telic(종결성)과 atelic(미종결성)의 의미를 살펴보자.

### 2.2.1. Telicity

Telic(종결성), static(상태성), durative(지속성)은 상황의 시간과 관련된 내부적 모습을 나타내는 상적 속성들이다. Telic(종결성)란 어떤 상황이 자연스런 종결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개념이고, Static(상태성)이란 어떤 상황의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은 채 계속되는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내부 변화를 포함하지 않으며 매순간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durative(지속성)란 어떤 상황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 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한 시점이나 순간이 아닌 시간 점유를 뜻한다.

Telic(종결성)과 관련한 의미적 연구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

20) 어형 변화를 하지 않는 단어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부사, 전치사, 접속사, 관사 등이 있다. Jespersen(1993:68-69)은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가 각기 다른 품사로 취급되기에는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이들 모두를 총괄하여 불변화사라 칭하였다.

계속 되어오고 있다(Aristotle 1933, Kenny 1963, Vendler 1967, Dowty 1979, Bach 1981, Smith<sup>21)</sup> 1991, Thompson 2006 등). 이런 종결성<sup>22)</sup>이 동사 자체에서 주어지는 것이기에 어휘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 (28) a. He ran. (atelic)
- b. He ran a mile. (telic)

위 (28)의 예문에서 *ran*은 ‘달리다’의 뜻을 갖는 같은 동사로 보이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 (28a)의 *ran*은 행동에 초점을 맞춘 단순한 행위동사로 그가 달리는 행위에 언제 끝났는지의 종결점이 없다. 즉 (28a)에서 *ran*은 종결성이 없는 동사로 atelic(미종결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28b)의 경우, ‘그가 1마일을 달린다’는 행위는, 그가 1마일 이상을 달리는 순간 저절로 사건(상황)이 종료 됨으로써 달성상을 나타낸다. 즉 (28b)에서 *ran a mile*의 *ran*은 달성성을 나타내므로 telic(종결성)이 있는 동사라고 할 수 있다.

Bhat(1999)는 이를 동사구상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처럼 종결성의 개념이 어휘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각각의 동사들은 그 자체가 telic(종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입장은, 종결성이 문장 단위에서 보아야 하는 것 이라고 말한다.

- (29) a. He built a house. (telic)
- b. He built houses. (atelic)

위의 예문 (29a)는 그가 하나의 집을 지으면 사건이 종결되므로 *built a house*에

---

21) Smith(1991)는 Vendler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achievement(달성)와 차별을 둔 순간성(semelfactive)이라는 상황유형을 첨가시키고 있다. cough, knock 등의 동사가 이에 속한다.  
 22) J.Kurylowicz는 이미 1956년에 언어의 보편소로서 상의 기능적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음성(미완성상), 양성(완성상), 중성(미완성상도 완성상도 아닌 미정상) 그리고 복합성(완성상+미완성상).

서 *built* 는 telic(종결성)이 있는 동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built* 라는 동사가 한정 명사인 (29a)의 'a house' 대신에 (29b)의 부정 복수 명사인 'houses'를 목적으로 취하게 되면 (29b)는 '그는 집들을 지었다' 라는 뜻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짓는 행동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 때의 *built* 는 종결성이 없는 동사가 되므로 atelic(미종결성)을 나타낸다. 즉 동사가 가지고 있는 telic(종결성)이 한 문장 안에서 어떤 요소들(participants)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바뀌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장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2.2.2. Atelicity

사건의 시간이 끝났거나, 종료 시점을 알 수 있을 때, telicity(have a natural completion)라고 하고, 사건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거나 종료 시점을 알 수 없을 때 atelicity(have no natural completion)라고 한다. 사건 구조를 어떠한 틀에서 개념화 하느냐에 따라 의미역<sup>23)</sup>(thematic role) 관계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30) a. He was running at the park. (atelic)

b. He ran for 2 hours. (telic)

위의 예문 (30a)에서 동사 *was running* 은 'be+V-ing' 형태의 진행상과 *was* 라는 과거시제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을 나타내므로 미종결성 사건(atelic event)이라 하고, (30b)는 과거시제 동사 *ran* 과 시간부사 *for 2 hours* 로 이뤄진 문장으로, 이 사건의 종결 시점을 나타내므로 종결성 사건(telic event)이라 한다.

---

23) 필모어(Charles J. Fillmore)는 동사를 중심으로 소위 주격, 목적격 등의 표층격(surface case)이 아닌 심층격(deep case)에 근거하여 어휘와 어휘 사이의 의미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는 촘스키(Nوام Chomsky)의 심층구조(deep structure)에서의 언어 기술이 충분치 못함을 지적하고, 문장은 그 심층 구조에서 동사와 보편적 어휘(universal vocabulary)에서 추출된 격(case)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 때 격(case)이란 주격 목적격 등의 통사적 격이 아니라 동사의 의미적 수행에 필요한 '의미역'과 같은 개념이다.

(31) a. I want to take a walk.

b. I want to have gone.

위의 예문 (31a)는 본동사 *want* 가 현재를 나타내고 있고 to-부정사의 단순형(현재형)이 쓰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타내고 있다. (31b)는 현재 동사 *want* 와 to-부정사의 완료형 ‘to+have+p.p’ 가 함께 쓰여 한 단계 앞선 시제인 과거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동사의 해석에서, 의미역<sup>24)</sup>(Thematic roles)의 양상들이 location(처소)과 motion(동작)의 의미기능으로 구분된다. 이를 바탕으로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location event는 어떤 장소에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motion event는 사물과 경로를 나타낸다. 대상과 위치의 관계는 세 가지이다. 대상으로서 어떤 개체가 출현, 참조 대상으로서 어떤 개체가 출현, 어떤 관계가 공간적 표현의 장에서 위치에 의해 역할이 가정된다. 또한 표현의 장에는 위치적 장, 소유적 장, 감정적 장이 있다. chew, cry, knead, juggle, play 등의 동사는 행동과 위치의 특성을 모두 가진다. 즉 행동과 위치로 모든 동사가 분석될 수는 없다.

### 2.2.3. Telicity와 Atelicity의 비교

사건(event)의 시간 구조인 telic(종결성)과 atelic(미종결성)은 durative(지속성)와 punctual(순간성), static(상태성) 등의 관계 속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지속성(durative)은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는 상황, 즉 과정을 기술하는 동사에 해당되고, 반면에 순간성(punctual)은 너무 순간적이어서 사실상 시간이 거의 수반되지 않는 사건을 기술한다. 순간동사(semelfactive verbs)는 flash, shoot,

---

24) 의미역 이론은 문장의 주어나 직접목적어 등이 그 문장에서 가지는 의미관계를 다루는 이론으로 Jakendoff(1969)에서 대상(theme), 처소(location), 출발점(source), 도착점(goal), 행위자(agent) 등의 의미기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개념 체계이다. 이들 관계는 전통적인 주어 서술어의 개념과 다르고, 이론에 따라 thematic relations, semantic roles, case roles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이정민, 배영남(1990)에서는 대상관계로, 양병선(1998)에서는 의미역으로 각각 옮겨쓰고 있다.

knock, sneeze, blink 등이 있고, 이들은 순간적인 동작을 나타내므로 처음과 끝을 쥘 수 없기 때문에 미종결 사건(atelic event)을 나타낸다. Telic은 자연스러운 종결점(have a natural completion)을 가지고 있고, atelic은 자연스러운 종결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Atelic은 activity, state를 나타내고, telic에 durative, punctual이 포함되면 accomplishment와 achievement를 나타낸다. 즉 accomplishment는 일종의 완료를 나타내고 achievements는 결과를 나타낸다. 상태동사(stative verb)는 결합 요소에 의해 시간 구조에 변화가 생긴다.

- (32) a. The soup was cool. (state)
- b. The soup cooled. (achievement)
- c. He cooled the soup. (accomplishment)
- d. He read the book. (durative)
- e. He kicked the ball. (punctual)

위의 예문(32a)에서 *was cool* 은 ‘차가웠다’란 뜻으로 스프의 차가운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32b)에서 *The soup cooled* 는 ‘차가워졌다’란 뜻으로 그 스프가 원하는 정도까지 식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차가워진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32c)는 따뜻했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가워졌다’는 뜻으로 완료를 나타낸다. (32d)는 ‘책을 계속 읽었다’는 지속성(durative)을 나타내고, (32e)는 ‘순간 공을 찼다’는 순간성(punctual)을 나타내고 있다. 사건을 인과적 연쇄(causal chain)라 할 수 있으므로, 단순 사건은 인과적 연결망의 하나의 분절이라 할 수 있다.

상태동사(stative verb)는 결합 요소에 의해 시간 구조에 변화가 생긴다. Telicity를 이해하는 두 가지 상호 보완적 방식은 결과(result)에 초점을 둘 것인지, 사건(event)의 내부 구조에 초점을 둘 것인지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33) a. She is sing. (atelic)

b. She is making a cake. (telic)

위의 예문 (33a, b)는 둘 다 지속적인 상황을 나타내지만, 종결성(telicity)은 다르다. 즉 (33a)는 언제든지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고 무한정 늘려서 할 수도 있지만, (33b)는 케이크를 만드는 일을 종결짓는 시점이 분명히 존재하게 된다. 즉 케이크가 완성되는 종결점이 있다. 이처럼 마지막 종결점(terminal point)이 있으므로 telic(종결성)이라고 하고, 마지막 종결점이 없는 경우를 atelic(미종결성)이라고 한다. telic과 atelic을 구분하는 방법은 보면, 어떤 상황에서 미완료상(진행상)의 의미를 가진 문장이 완료의 의미(완료상)를 가진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 상황은 atelic(미종결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telic(종결성)이다. 위의 예문 (33a)에서 '*She is sing*' 이 '*She has sung*'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atelic(미종결성)이다. 그러나 (33b)의 '*She is making a cake*' 이 '*She has made a cake*'의 의미가 될 수 없으므로 telic(종결성)이다. 이처럼 telic의 상황은 분명한 종결점까지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며 그 종결점을 넘어 과정이 계속 될 수는 없다.

(34) a. He hammered the metal flat. (telic)

b. He hammered the metal. (atelic)

위의 예문 (34a)의 *hammered the metal flat* 은 '금속을 납작하게 두드렸다' 는 뜻으로 금속이 납작해지는 순간 사건이 종결되므로, 행위동사 *hammered* 가 완결 해석을 갖는 종결성(telic)의 의미를 갖는 동사이다. 그러나 (34b)의 *hammered* 는 망치를 두드리는 행위가 언제 종결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미종결성(atelic)의 의미를 갖는 동사이다. 즉 종결성(telicity)이 대상의 점진성(graduality)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결과술어(resultative predicate)라 할 수 있다.

- (35) a. He built houses for 6 months.  
 b. She made cookies for 2 hours.  
 c. She jogged for 2 hours.  
 d. She lived in Seoul for 2 years.

위의 예문 (35a)의 *built* 는 ‘(집을)지었다’ 는 뜻으로, 6개월 동안 몇 개의 집을 지었는지, 한 개의 집이 6개월이 걸려서 완성된 집인지를 알 수 없다. 반면 (35b)를 보면, *made* 는 ‘(쿠키를)만들었다’ 는 뜻으로 두 시간 동안 일정량의 쿠키를 만드는 것이므로 *for 2 hours* 라는 시간부사구로 인해 ‘*made cookies*’ 는 telic(종결성)의 의미를 갖는다. (35c)는 ‘조깅이 2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는 뜻으로 *jogged* 가 ‘조깅했다’ 는 행동을 나타내고 있고, (35d)는 ‘Seoul에서 산 것이 2년 동안 지속되었다’ 는 뜻으로 *lived in* 이 ‘(Seoul)에서 살았다’ 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상태동사<sup>25)</sup>는 정적인 상황(static situation)을 나타내지만, 행동동사는 동적인 상황(dynamic situation)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들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상태동사와 행동동사는 상태의 변화(change of state)가 전혀 없는 상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같고, 본질적으로 시간이 무한하다는 특성을 지니므로 atelic(미종결성)을 나타낸다.

- (36) a. She reached the summit in 2 hours.  
 b. She wrote the report in 2 days.

위의 예문 (36a)의 *reached the summit* 은 ‘정상에 도달했다’ 는 뜻으로 완수를 나타내고, (36b)의 *wrote the report* 는 ‘보고서를 썼다’ 는 뜻으로 성취를 나타낸다. 완수동사와 성취동사는 상태의 변화(change of state)를 나타내는데 상태의

---

25) 상태동사(stative verb)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습의 변화가 없는 동사들을 말한다. be, have, know, remain, love 등이 있으며, 문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행형과 명령문이 불가능하다.



변화란 본질적으로 시간상 유한하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telic(종결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완수동사는 순간적(punctual) 상태변화를 나타내지만 성취동사는 확장된 상태변화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다르다.

어떤 상황의 종결성과 미종결성을 판단하는 방법 중 아래 (37a,b)처럼 *finish* 라는 확실한 종결성을 나타내는 동사를 사용하여 보자.

(37) a. He jogged for 2 hours.

-> Did he ever finish it? (atelic)

b. He wrote the report for 2 days.

-> Did he ever finish it? (telic)

위의 예문 (37a)를 살펴보면, ‘그는 2시간 동안 조깅했다’ 라는 답변에 대한 질문으로 다음과 같이 ‘*Did he ever finish it?*’ 처럼 *finish* 를 넣어보면 말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종결의 의미를 갖는 *finish* 가 어색하므로 동사 ‘*jogged*’ 가 종결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atelic(미종결성)의 문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37b)에서는 ‘*Did he ever finish it?*’ 라는 질문에 대해 ‘이틀 동안 보고서를 썼다(끝냈다)’ 라는 종결의 의미로 답을 할 수 있으므로 ‘*wrote*’ 는 telic(종결성)의 의미를 갖는다.

#### 2.2.4. 어휘 통사구조(lexical-syntax structure)

생성어휘이론(generative lexicon theory)에서는 단어가 지닌 의미 사이의 연관성을 포착하기 위하여 다층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어휘의미구조(lexical semantic structure)를 제시하고 있다. 즉 생성어휘이론에서는 단어의 의미를 논항구조(argument structure), 사건구조(event structure), 특질구조<sup>26)</sup>(qualia structure), 어휘계승구조(lexical inheritance structure)로 기술하는데, 특히

26) 특질구조에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떠한 사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네 가지의 양상들이 반영된다. 즉,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constitutive), 누가 만들었는가(agentive),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나(formal), 용도가 무엇인가(telic)의 네 가지 양상들이 그것이다.

특질구조(qualia structure)에서는 단어가 지닌 의미들이 관계를 맺는다. 이 네 가지 구조는 각각 별개의 구조가 아니라 서로 긴밀한 연관을 갖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술어의 의미구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사건구조(event structure)와 논항구조(argument structure)이며 이들은 통사구조(syntax structure)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사에 논항<sup>27)</sup>이나 부가어(adverbial)를 추가하면 동사의 상적 특성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사의 상적 특성만을 기초로 지속부가어를 선택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

#### 2.2.4.1. 논항구조

논항구조(argument structure)란 무엇인가? 어떤 술어의 논항구조란 그 술어가 문장을 구성하면서 요구하는 논항들의 수와 그 의미역 집합을 말한다. 어휘항목이 가지는 논리적 논항의 수와 유형, 그리고 이 논항들이 통사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명시한다. 여기서의 논항은 단순히 술어나 사건 명사가 통사적으로 반드시 취해야 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논항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성어휘론에서는 실제 명사도 논항을 취한다. 논항에는 참논항(true argument), 당연논항(default argument), 그림자논항(shadow argument), 그리고 참부가어(true adjunct)가 있다. 참논항은 논리적으로도 통사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논항이며, 가장 일반적인 개념의 논항이다. 당연논항은 논리적인 적형성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문장 통사적으로는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논항이다. 그림자논항은 술어의 하위개념인 논항으로 논리적으로도 통사적으로도 수의적인 논항이며, 반드시 특정한 수식표현을 동반해야만 통사적으로 실현 가능하다. 참부가어는 장소나 시간 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논리적 해석을 수식하고 상황적 해석의 일부이지만 특정 어휘항목의 의미표상에 고정된 것이 아닌 변수를 말한다.

---

27) 술어는 행위나 사건을 표시하고, 논항은 행위나 사건에 관련된 참여자를 말한다. 동사의 논항은 일반적으로 그것의 주어와 보충어이다.

(38) He hited the ball.

위의 예문 (38)에서 *He* 는 인과적 사건의 주체가 되는 명시어의 역할을 하고, 동사 *hited* 는 인과적 사건과 사건의 진행을 나타내며, *the ball* 은 사건 진행의 주체가 되는 명시어로 사용된다.

(39) He broke the glass.

위의 예문 (39)에서 *He* 는 사건 원인의 주체이고 *broke* 는 사건 원인이며 동시에 사건의 진행과 결과 상태를 나타내며, *the glass* 는 사건의 진행과 결과 상태의 주체이다.

영어의 전치사는 *in*, *on* 등의 상태 전치사와 *to*, *into* 등의 동작 전치사로 구분할 수 있다. AP 결과술어구문에서 본동사에 의해 원인이 된 행위가 AP 술어와 결합하여 결과 상태로 종결되는 것처럼 방향성을 보이는 이동 동사 구문에서도 목표역 전치사구는 동사와 결합하여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 목표역<sup>28)</sup> 이동구문에서 종결의 의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경로(*path*)와 종결성을 독립적으로 암호화하는 복합 전치사의 속성 때문이다. 다음 이동 구문을 살펴보자.

(40) a. He ran to the shop.

b. The ball rolled into the pond.

위 (40a)의 동사 *ran* 은 동작전치사 *to* 와 결합하여 ‘상점으로 뛰어갔다’ 는 뜻으로 결과 상태를 나타내고, 목표역 *the shop* 으로의 이동구문에서 종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이동동사와 함께 종결성을 완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0b)의 동사 *rolled* 도 동작전치사 *into* 와 결합하여 ‘연못으로 굴러갔다’ 라는 결과 상태를 나타내고, 목표역 *the pond* 로의 이동구문에서 종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

---

28) 움직이는 것이 향하고 있는 개체.

다.

Goldberg & Jackendoff(2004)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40a)와 같은 목표역 PP 이동구문(goal of motion construction)은 결과구문과 의미적, 상적으로 유사하다고 말한다. 위의 *to the shop* 과 같은 목표역 또는 종결성 경로(telic path) 전치사구와 결합하면 사건의 종결성을 인허하게 된다.

목표역 이동구문에서 종결의 의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경로(path)와 종결성을 독립적으로 암호화하는 복합 전치사의 속성 때문이다. 아래 (41)의 이동구문을 살펴보자.

(41) He ran toward the church.

(그는 교회로 달려갔다.)

위 (41)에서 *He* 와 *the church* 는 사물 구성성분에 해당하고, *toward the church* 는 경로(path) 구성성분에 해당하며, 전체 문장은 사건(event) 구성성분에 해당한다(Jackendoff, 1995).

Nida(1975)는 모든 언어에 보편적이라고 판단한 실체(entity), 사건(event), 추상(abstract), 관계(relation)로 의미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 대응하는 문법 범주는 실체(entity)에 대하여 명사가 나타나고, 사건(event)에 대하여 동사가, 추상(abstract)에 대하여 형용사가, 그리고 관계(relation)에 대하여 부사나 전치사가 나타난다. Lyons(1977)는 어휘를 크게 실체(entity), 속성(quality), 행위(activity)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행위는 사건(event)과 과정(process)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 2.2.4.2. 사건구조 (event structure)

생성어휘론에서 사건구조(event structure)는 해당 어휘나 구의 사건유형(event type)<sup>29)</sup>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위사건구조(subevent structure)를 취할 수

---

29) Bach(1986)는 사건, 상태 그리고 과정 이 모두에 대해 사건성(eventuality)이라는 용어로

있으며, 하위사건에는 상태(state), 과정(process), 전이(transition) 등의 의미 유형이 있다. 이러한 하위사건은 시간적 발생순서에 따라 순서가 매겨진다. 또 생성어휘론에서는 이러한 사건 유형과 더불어 하위사건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현저(prominent)하거나 중요한 하위사건이 있음을 중점(headness)의 개념으로 기술하고 있다. 중점사건은 술어의 번역 과정에서 초점을 받는 사건을 말한다.

#### 2.2.4.3. 특질구조(qualia structure)

특질구조는 사건구조(event structure)와 논항구조(argument structure)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며, 실질적인 어휘의미의 내용을 표시한다. 특질구조 안에는 단어가 나타내는 개체 또는 사건이 다른 단어의 그것들과 구별시켜주는 의미부분인 형상역(formal role),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보여주는 구성역(constitutive role), 목적과 기능을 나타내는 기능역(telic role), 그리고 발생적 요인을 표시해주는 작인역(agentive role)의 의미속성으로 구성된다.

형상역은 한 개체(individual)를 전체 세계에서 구별해주는 것으로, 논항이 하나일 경우는 논항의 의미 유형 자체가 형상역이 되지만, 논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논항들 사이의 관계가 형상역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구성역(constitutive role)은 개체와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체의 재료나 부분 뿐만 아니라 개체가 논리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 지도 보여준다. 작인역(argument structure)은 개체의 기원을 밝혀 주는데 이 역시 논항 사이의 관계로 표시되며, 문장에서 실제로 결합하는 술어 중 하나가 관계로 나타난다. 특질구조는 어휘들을 설명방법의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단순한 의미 분해 관점이나 순수한 관계적 접근방식보다는 의미를 더 잘 기술할 수 있게 해준다.

#### 2.2.4.4. 어휘계승구조

어휘계승구조는 유형 격자 속에서 한 어휘구조가 다른 어휘구조와 맺고 있는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어휘부 전체 조직 속에서 해당 어휘의 지위를 보여준다. 즉

---

총칭한다. 이후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건이라는 용어로 이 ‘사건성’의 포괄적인 내용을 함축하여 사용한다.

어떤 어휘 항목이 유형 격자 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고, 전체 어휘구조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상속하는지를 결정한다.

Pustejovsky(1995)는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휘계층 구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디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는 명사의 계층적 분류체계와 관계된 것으로 다의성 명사의 어휘의미구조에서는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2.2.5. 한국어에 나타난 상(aspect)의 의미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시제(tense), 서법(modality) 등과 더불어 상<sup>30)</sup> 범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남기심<sup>31)</sup>(1972)의 '현대국어시제에 대한 문제'를 통해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일어났다. 남기심은 아래와 같이 완료와 단속이란 두 개의 상(aspect)과 서법(modality) 체계가 결합한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어간 + (완료/단속) + (미확인) + (회상) + 서법

국어의 사상 형태들은 시제(tense) 기능, 상(aspect) 기능, 서법(modality) 기능의 복합 기능을 지니고, 이런 사상 개념에 따라 시간부사(tense adverb)의 어휘의미를 분석해 보면 시제기능을 보조하는 시제 관련 시간부사(tense adverb), 문법상과 어휘상의 기능을 보조하는 상 관련 시간부사 즉 상부사(aspectual adverb)로 나누어 기술함이 편리하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30) 김성화(1992)에 의하면 한국어의 상은, 크게 지속상과 종결상으로 나뉘며 각각은 그 양상에 따라 하위 분류되어 지속상에는 모두 두 개(진행성지속상, 반복성지속상)의 하위부류가 그리고 종결상에는 다섯 개(결과성종결상, 보유성종결상, 완수성종결상, 소거성종결상, 단절성종결상)의 하위부류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31) 남기심(1972)은 한국어의 시제체계를 상 범주를 바탕으로 세워야한다는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상을 설명하고 있다. “상은 시간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만 시제와 같이 어떤 동작, 사건, 혹은 일의 상태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화의 시점을 중심으로 하여, 어떤 동작이나 사건의 시간적 양태(modality), 혹은 동작이나 사건 속에 시간적 폭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 (42) a. 그는 어제 숙제를 끝냈다.  
 b. 그녀는 내일 그 작업을 끝낼 것이다.

위 (42a)에서 시간부사 ‘어제’가 ‘끝냈다’를 수식하고 있으며, 과거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42b)에서 ‘내일’이란 시간부사가 ‘~할 것이다’라는 미래형 술어와 결합하여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

- (43) a. 순희는 과자를 먹고 있다.  
 b. 민호는 영화를 보고 있다.

위의 예문 (43a)의 ‘먹고 있다’, ‘보고 있다’는 ‘먹다 + ~하고 있다’와 ‘보다 + ~하고 있다’가 결합된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진행상을 나타내고 있다.

- (44) a. 순희는 그 집에서 죽 살아오고 있다. (atelic)  
 b. 철수는 지갑을 잃어버렸다. (telic)

위의 예문 (44a)의 ‘살아오고 있다’는 ‘살다 + ~(해)오고 있다’로 완료상을 나타내고 있고, (44b)의 ‘잃어버렸다’는 ‘잃다 + ~(해)버렸다’로 완료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영어에서 진행상과 완료상이 나타나듯이 한국어에서도 ‘~(하)고 있다’란 뜻의 진행상과 ‘~해 버렸다’는 뜻의 완료상이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45)의 예문을 통해서 telic(종결성)과 atelic(미종결성)을 살펴보자.

- (45) a. 철수가 청소할 때, 그녀는 편지를 썼다. (atelic)  
 b. 그는 어제 편지를 두 장 썼다. (telic)

완료상과 미완료상의 구분은 상(aspect)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영어나 우리말에서 문법적으로 구분이 쉽지 않다. 우리말의 경우 완료상과 미완료상이 문법화 되어 있지는 않다. 위의 예문 (45a,b)에서 ‘썼다’라는 과거 시제를 썼지만, (45a)는 동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의미적으로 atelic(미종결성)을 나타내고, (45b)는 편지 두 장을 쓴 동작이 완료되었으므로 telic(종결성)을 나타낸다.

(46) a. He comes here. (습관상)

b. When he comes here, I'll tell him. (완료상)

위의 예문 (46a)의 ‘comes’와 같은 현재형은 영어에서 보통 습관상(habitual)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46b)에서 종속절 ‘~ i'll tell him’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고, 주절 ‘When he comes here,~’은 ‘그가 오는 동작이 완료되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래 완료상을 나타낸다.

(47) a. 그는 빵을 먹고 있다.

b. 그는 멋진 시계를 차고 있다.

c. 그는 그 사건을 알고 있다.

위 (47)의 예문을 보면, 모두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동일하게 표현되지만, 이들이 나타내는 상(aspect)은 모두 다르다. (47a)는 ‘~(을) 먹고 있다’는 뜻으로 계속상(continuous)을 나타내고 있고, (47b)는 ‘~(을) 착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완료상(perfect)을 나타내고 있으며, (47c)는 ‘~(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결과상(resultative)을 나타내고 있다.

Vendler(1967)를 위시하여 여러 연구에서 상황 유형을 제시하고 있지만, 상황의 동적 특성(dynamic)의 여부, 상황의 종결성(telicity) 여부 등은 공통적인 기준을 들고 있다. 상태와 지속적인 과정은 atelic이고, 종국적인 과정과 진입 사건, 순



간적인 사건은 telic이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48) a. 영희가 빵을 만들고 있다.
- b. 영희가 빵을 만들어 버렸다.
- c. 영희가 빵을 만들어 간다.

위 (48)에서 ‘영희가 빵을 만든다’의 상황은 종국적인 과정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세 가지의 상(aspect)적인 의미 차이가 나는 것은 (48a)의 ‘~(하)고 있다’와 (48b)의 ‘~ 해 버렸다’ 그리고 (48c)의 ‘~ 해 간다’의 쓰임 때문이다. 화자는 (48a)의 ‘~(하)고 있다’를 통해 상황의 진행 단계를 나타내고 있고, (48b)의 ‘~ 해 버렸다’를 통해 상황의 완료를 나타내고 있으며 (48c)의 ‘~ 해 간다’를 통해 상황의 완료 시점으로 치닫는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 (49) a. \* She ran/walked to the shop.  
      (그녀가 가게에 뛰/걸었다.)
- b. She ran/walked toward the shop.  
      (그녀가 가게로 뛰/걸었다.)

위의 예문 (49)에서 *run*, *walk* 등의 동사는 목표역(goal) PP(prepositional phrase) ‘~에’와 더불어 공존할 수 없고 방향성 목표역 해석을 인허할 수 없다. (49a)에서 ‘to’가 ‘~에’의 뜻으로 *run*, *walk* 등의 동사와 어울리지 않는다. 즉 *ran*, *walk* 등은 양태동사로서 목표역 해석을 인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위 (49b)와 같이 방향성 PP인 ‘toward’는 ‘~(으)로’란 뜻으로 양태동사 *run*, *walk* 등과 어울릴 수 있다. 즉 한국어의 양태동사는 목표역 PP ‘~에’의 뜻을 갖는 ‘to’와 함께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지만 ‘~(으)로’란 뜻을 갖는 방향성 PP ‘toward’와는 어울릴 수 있다.

한국어의 상(aspect) 혹은 상 인식은 용언어근의 의미자질, 용언 선어말어미의

시제 기능과 서법(modality) 기능의 교차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셈이다. 민현식(1991)에 의하면 진행상과 지속상의 차이는 진행상은 전체 시간 중에 일부, 즉 기준시를 중심한 부분적, 제한적(limited) 시간에서의 내적인(internal) 지속을 뜻하며 이 때 시간의 길고 짧음에 무관하되 지속상은 총체적(total) 시간에서의 외적인(external) 지속으로 시간의 길이가 관계되는 편이라 단기지속상, 장기지속상 등의 구분이 필요하다. 지속상은 일정 시간이나 기간 동안 사건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표현하는 상으로 용언의 어휘상 중에 ‘계속하다’, ‘자다’, ‘있다’ 등은 지속상의 어휘와 상의 체계상 유사하다. 외적인(external) 지속은 여기에서 일정 시간이나 기간 동안 사건 상태(과정)가 계속되는 것이다.

### III. 결론

본고는 to-부정사의 시제(tense)와 상(aspect)과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다. To-부정사에 나타난 시제와 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to-부정사에서 시제 표현시 왜 상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고, 동시에 상(aspect)에 나타난 의미를 telic과 atelic의 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영어의 시제(tense)와 상(aspect)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따른 의미를 telic과 atelic으로 상을 살펴보았다. 영어의 시제는 과거(past)와 비과거(non-past) 두 가지(binary system)로 구분되기 때문에 다양한 시간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진행상(progressive)과 완료상(perfect) 등의 상(aspect)이 필요하고, 본동사와 상에 따른 시제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고 상에 따른 시제 표현시 문장에 나타나는 종결성(telicity)에 대해서 예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제 1장에서는 to-부정사의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To-부정사의 형태는 같지만, 그 안에 나타나는 다른 시간의 표현은 시제(tense)와 상(aspect)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를 위해 제 2장에서는 시제(tense)와 상(aspect)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부정사의 단순형(현재형)과 완료형, 과거시제와 현재시제, 문법적 상(grammatical aspect)과 어휘적 상(lexical aspect)으로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문법적 상(grammatical aspect)과 어휘적 상(lexical aspect)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어에는 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telic(종결성)과 atelic(미종결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즉 종결성에 대해 말할 때, 문맥이라는 것이 한 사건의 종결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다. 이 글은 지금까지 소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시제(tense)와 상(aspect)에 나타난 telic과 atelic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국내

- 곽성희. 1999. Acceptability and Grammaticality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한국어 교육』 제10권 2호: 135-152.
- 남승호. 2004. 한국어 술어의 사건구조와 상적 의미. 『인문논총』 52: 75-124.
- 송진희. 2006. 시제와 상의 유형론. 『독어학 13집』.
- 이복희. 2006. Aspectual characteristics and shift of verbs.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39. 163-186.
- 이영현. 1998. Semantic Ambiguities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Arguments in Korean Verbs. 『언어학』 6권.
- 이영현. 1998. Argument structure of predicates and their semantic aspects in Korean. 155-183. 『언어와정보』 2(2).
- 이재성. 2001. 한국어의 시제와 상. 국학자료원.
- 장승일. 1994. 우리는 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 국외

- Anderson, Lloyd (1982): The “Perfect” as a Universal and as a Language-specific Category. *Tense-Aspect: between Semantics and Pragmatic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27-264.
- Borer, Hagit, 2004. Structuring Sense. Structuring Telicity. 73-85
- Comrie, Bernard (1976):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mrie, Bernard, (1976): *Aspect-An Introduction study of verbal aspect and related*

- Problems. Cambridge, London, New York, Melbour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mrie, Bernard (1985): *Ten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clerck, R. (1979). Aspect and the bounded/unbounded(telic/atelic) Distinction. *Linguistics* 17, 761-794.
- Declerck, R. (1979). Aspect and the Bounded/Unbounded (Telic/Atelic) Distinction. *Linguistics* 17, 761-794.
- Dahl, Östen (1985): *Tense and Aspect systems*. Oxford: B. Blackwell.
- Dowty, David R. (1988). Thematic Proto-roles, Subject Selection and Lexical Semantic Defaults. ms.
- Folli and Ramchand (2001) : Heritage lang education, Syntax&Semantics.
- George Yule. (1998). *Explaining English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 Jackendoff, R. 1990.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Massachusetts:MIT press.
- Landman, Fred. 1992. The progressive. *Natural Language Semantics* 1, 1-32.
- Noam Chomsky. 2000. Knowledge of language. 아르케
- Smith, Carlota S.(1991):*The Parameter of Aspect*.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Thieroff, Rolf & Joachim Ballweg(eds.) (1994): *Tense Systems in European Languages*.

## 연구논문

### 국내

- 권태상. 2008. To-부정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 김대준. 2008. 영어의 부정사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 김정오. 2004. 영어시제, 상과 시간부사구와의 상관관계. 조선대학교.
- 김정애. 2006. To부정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 박지애. 2001. 영어의 시제와 상에 관한 의미 연구. 계명대학교.
- 송선정. 2006. 영어 To-부정사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이상대. 1998. 영어의 시제와 상의 의미 연구. 석사학위논문. 안동과학대학.
- 이연화. 2008. AP결과술어와 PP결과술어의 비교. 남서울대학교.
- 전병무. 1988. 현대 영어의 시제형태와 그 의미.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정나진. 2008. 중학교 영어교과서 연계성 분석.
- 한아람. 1998. 의미상으로 본 To부정사와 원형부정사 연구. 국민대학교.
- 황보근. 2007. 영어 부정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